

#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보고

## 1. 회의 개요

※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경제위기·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

-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협력의 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양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 총 50년간 한국 5,641명, 일본 5,272명 합계 10,913명이 참가

- 1) 테마 :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 가자!'
- 2) 일시 : '18. 5. 15(화)~16(수)
- 3) 장소 : 호텔 오쿠라 도쿄 별관 B2F 애스콧홀(ASCOT HALL)
- 4) 참석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총 302명
  - 한국측 :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114명
  - 일본측 : 사사키 미키오 회장 등 188명

## 2. 주요 성과

- 역사적인 50회 회의를 맞이하여, 지난 50년간의 협력을 토대로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함께 창조해 나가자는 데 합의
  - 1969년 이래 연인원 1만명을 넘어서는 경제인이 참가하여,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일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 일본정부부처 예방을 통해, 한일경제협력 증진 활동소개·지원 요망
- 새로운 50년을 향해, 한국 취직난·일본 노동력 부족·방재대책 등 양국의 공통과제 해결을 포함한 6대 핵심사업에 대한 협력 합의
  - △아시아 하나의 경제권 형성추진, △제3국 공동진출 확대, △한일 잠재력의 극대화 협력, △한국 취직난·일본 노동력 부족·방재대책 등 양국 사회과제 해결, △한일 청소년 육성·교류의 지속 및 내실화, △도쿄 올림픽 성공개최 협력

## ①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

### 1) 아시아 하나의 경제권 형성 추진

-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발전, 다양한 어프로치로 아시아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지향

### 2) 제3국 공동진출 확대, 한일경제협력·교류확대

- 자원·인프라 수출 등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을 확대
- 한일경제협력·교류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

### 3) 한일 잠재력의 극대화 협력

- 미래 50년을 향한 협회·재단의 역할 강화

### 4) 한국 취직난·일본 노동력 부족 등 양국 사회과제 해결

- 한국청년 취직난 해결,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방재대책 등

### 5) 한일 청소년 육성·교류의 지속 및 내실화

- 한일 차세대 교류, 고교생교류캠프·한일학생미래회의·한국대학생 주한 일본기업 인턴십 연수, 중소기업 차세대경영자 교류

### 6) 도쿄 올림픽 성공개최 협력

- 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와 우정을 이어받아, 도쿄올림픽 성공개최 협력

## ②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YTN, KBS, 일본경제신문, NHK, JJI통신, 동양경제일보 등 국내외 주요 언론 홍보를 통해 한일 간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확산

- 일본 정부의 활동과 중요정책을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정부 인터넷 TV로 소개됨은 물론 수상관저를 비롯하여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 측 단장단 방문관련 보도자료가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홍보됨

## ③ 한국측 단장단(단장 :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행은 아베 내각총리 대신 등 일본 정부부처 예방을 통해,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나가는데 있어서 경제계 활동에 대한 서포트를 요망함

- 제3국 공동진출 확대, 한일·다자간 광역FTA 지지, 인재의 상호 보완·차세대 경제인교류, 문화교류 협력 등

### 3. 종합평가

-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에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국제정세 악화, 글로벌 경제위기, 대지진 등 수차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한 번도 중단되는 일 없이 반세기동안 매년 회의를 개최해 옴으로써 한일협력의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함
- 기념비적인 50회 회의를 기념하여, 대통령 축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으며, 일본측에서는 한국 첫 공식 방문 등 한일 친선을 위해 노력한 일본왕족인 故 다카마도노미야 친왕의 부인과 일본총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한일협력의 상징적인 회의체로서의 역할 수행
- 양국 경제인들은 다음 50년도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창조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한일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형성함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한투자기업의 성공요인 소개를 통해서 한일경제협력·교류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한일제휴의 확대가 기대됨

### 4. 향후 후속조치 사항

- 1) 회의결과 요약 보고서 제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2) 대정부 공동성명서 제출
- 3) 공동성명 합의사항의 Follow-up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 가자!」**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8년 5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이수훈 주일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 윤(金 鈞) 단장 등 114명, 일본측에서는 다카마도노미야 비 히사코(高円宮妃久子),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총리대신께서 임석해 주셨고,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등 188명이 참가했다.

이 기념비적인 회의의 개최식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축사를 보내주셨고, 일본국 다카마도노미야 비 히사코(高円宮妃久子),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총리대신께서 임석해서 축사를 해주셨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양국 경제인은 한일 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양국 교차로 계속 개최해 왔다. 양국 경제인은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만감이 가득한 심정으로 되돌아보면서, 50회 개최에 이르기까지의 양국 선배 제위의 노력에 최대한의 경의와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양국 경제인은 기념비적인 제50회 개최를 다함께 축하하고, 다음 50년을 향해서 한일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인재교류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구체적 노력을 거듭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한 북한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의 화해로의 움직임, 북핵문제 해결과 주변국 안정화 확대를 크게 기대함과 동시에, 5월9일 3년 만에 개최된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의 성공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으로 연계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경제면에서는 무역전쟁의 양상을 보이는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 시장의 변동성 고조 등이 현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필적하도록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에 의한 CPTPP나 그 밖의 FTA, 메가 FTA에 의한 아시아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한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이번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작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의 공동성명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 양국 경제인이 제휴해서 추진해 가기로 했다.

**「격동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발전의 방향성 확인」**  
한일관계의 갈등을 넘는 미래지향의 관계 발전과 다양한 어프로치로 아시아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지향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그리고, 상생과 협력의 21세기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 50년을 향한 협회·재단의 역할을 강화한다.

「자원·인프라 수출 등 제 3국에서의 한일 협업을 한층 더 확대」  
양국이 자원개발, 인프라 수출 등을 통해서 제3국에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창조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함께, 제3국의 종합적 사회개발에 기여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한투자기업의 성공요인을 통해서 바라본 한일 경제협력·교류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협력의 확대를 기대한다.

「일본의 고용문제, 한국의 취직난 등 양국이 직면한 사회과제 해결에 상호협력」  
일본의 노동력 부족과 한국의 청년인재 취직난 해결을 위한 정례적인 세미나 등의 개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방재대책 등 한일이 직면한 사회과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한일 청소년 육성·교류의 지속 및 내실화」  
한일 차세대 교류의 지속·내실화가 다음 50년을 창조한다는 신념 아래, 한일 고교생교류캠프·한일학생미래회의·한국대학생의 주한일본기업 인턴십 연수, 중소기업 차세대경영자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육성을 계속한다.

「평창으로부터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향해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세계에 그 열기와 우정을 전하고 성공리에 종료했다. 한일 양국 경제인은 그 열기와 우정을 도쿄로 이어가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한일 간 가일층의 관광/스포츠 교류발전을 기대한다.

「양국 정부에 대한 기대」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한층 더 확대하는 것은 미래지향의 양국관계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다. 부디, 양국 정부의 이해와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다음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9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8년 5월 16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 幹夫

## <참고>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 주 제 :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 가자!
- 장 소 : 일본 호텔오쿠라도쿄 B2F Ascot Hall

■ 5.15(화)	
오전 예방활동	▶ 한국측 단장단 일본 주요기관 예방 (5/14 오후~5/15 오전)
개회 및 개회사 14:00~14:30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주) 특별고문(前회장) ▶ 김 윤(金 鈞) (사)한일경제협회 회장·(주)삼양홀딩스 회장
기념축사& 내빈인사 14:30~15:10	▶ 다카마도노미야 비(高円宮 妃) ▶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총리대신 ▶ 문재인(文在寅) 대한민국 대통령 : 이수훈(李洙勳)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대독 ▶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 김영삼(金榮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예정) ▶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 定征) (일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15:15~15:45	Coffee Break
기조연설 15:45~16:20	▶ 사이키 아키타카(齋木 昭隆) 미쓰비시상사(주) 이사·前외무사무차관 ▶ 김영주(金榮柱) (사)한국무역협회 회장·前산업자원부 장관
보고·제언 16:20~16:50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양국 체어맨)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 안종원(安宗原) (사)한국무역협회 前부회장 ○ 협회활동의 일반경과보고
리 셉 션 17:00~18:30	○ 환영리셉션 (한일·일한경제협회 공동 주최) : 2F 오차드 룸

■ 5.16(수)	
<p>제1세션 09:00~11:45 (20분×4명발표) 85분 토론)</p>	<p><input type="checkbox"/> 좌장 : 이경태(李景台) 前 고려대학교 석좌교수·前 국제무역연구원 원장</p> <p><input type="checkbox"/> 주제 : 한일경제제휴·교류, 미시적·거시적 관점</p> <p>○ 일본측 발표자 : 후쿠다 야스시(福田 康) 스미토모상사(株) 이사·물류인프라사업본부장 ▶ 한일기업 투자동향으로 본 동남아시아 거점으로서의 베트남·미얀마 소개</p> <p>○ 한국측 발표자 : 이영관(李泳官) 도레이첨단소재(株) 대표이사회장·한일경제협회 상임이사 ▶ 도레이첨단소재의 성공 요인을 통해서 바라본 한일경제 협력·교류 확대</p> <p>○ 일본측 발표자 : 다카하시 가쓰노리(高橋 克周) (株)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장 ▶ 한일경제연계에 있어서의 메가뱅크의 역할</p> <p>○ 한국측 발표자 : 서석송(徐錫崇)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Toward next 50 years!</p> <p>△ 패널디스커션, 질의응답 ▶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SJC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株) 사장</p>
<p>오찬회 11:45~13:00</p>	<p>단원 오찬회(2F) 및 공동성명(안) 심의회 &amp; 양국 재단 연락협의회 : 12F 켄싱턴테라스</p>
<p>제2세션 13:20~15:40 (15분×4명발표) 80분 토론)</p>	<p><input type="checkbox"/> 좌장 : 고히리 스스무(小針 進)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장</p> <p><input type="checkbox"/> 주제 : 미래지향, 다음 50년의 관점</p> <p>○ 일본측 발표자 : 미키 아쓰유키(三木 篤行) JA미쓰이리스(株) 상무이사·前SJC이사장 ▶ 향후 50년의 한일관계를 생각하면서</p> <p>○ 한국측 발표자 : 신각수(申珏秀) 법무법인세종 고문·세토포럼 이사장·前주일한국대사 ▶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 ~상생과 협력의 선린관계~</p> <p>○ 한일 차세대 공동발표 * 미래 50년의 주역인 한일 양국 청소년들의 희망과 비전 (한국) 임기훈(林起勳)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제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참가자) 김세훈(金世勳) 도호쿠대학대학원 물리학(제1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참가자) (일본) 오후보 다쿠마(大久保 匠馬, 마츠다케(株) 사원, 제5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참가자) 사사키 니이나(佐々木 仁渚, 조치대학 신문방송학, 제22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참가자)</p> <p>△ 패널디스커션, 질의응답 ▶ 이데이시 타다시(出石 直) NHK해설주간</p>
<p>폐회식 16:00~16:20</p>	<p>○ 공동성명 채택, 폐회인사 / 16:30~17:00 공동기자회견(양국 단장) : B1F 토파즈</p>